

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동수 본부장(kim.dongsoo@kiet.re.kr)

목 차

- 서론
- 중국의 대외정책 1기: 정치적 진영구축
- 중국의 대외정책 2기: 경제적 영향력 강화
- 중국의 대외정책 3기: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중국 대외정책의 도전과제

- 최근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 중
 -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 중국의 1기 대외정책은 진영구축을 위한 합종연횡식 정책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에 대응할 만한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CSO) 등의 협력체 구축
- 중국의 2기 대외정책은 일대일로 구상과 같이 경제적 영향력 강화
 -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공급과잉이라는 국내문제 해결과 경제적 영향력 강화라는 대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고 RCEP을 통하여 다자자유무역 리더십 구축
- 중국의 3기 대외정책은 G2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할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글로벌 개발·안보·문명 구상을 통하여 ‘공동운명체’를 주도
-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략경쟁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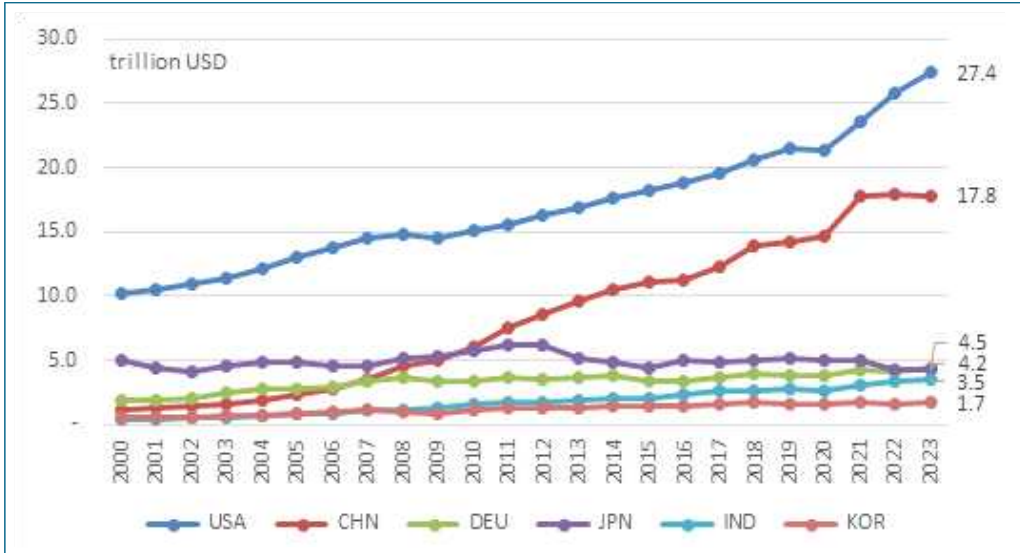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위상변화

- 중국은 1992년 개방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2010년 경제 규모가 일본을 넘어 2위 국가(G2)로 도약하였음.
 - 세계은행(World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2010년 약 6.1조 달러로 15조 달러 수준의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G2 국가의 위치로 부상하였음.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9.2%에서 2021년 약 18.3%로 상승하면서 영향력이 커졌음.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21년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그로 인한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 원인으로 보임.

-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 약 40%에서 2021년 75.5%까지 상승하였다가 2023년 65.0% 수준으로 낮아졌음.

[그림 1] 국내총생산 상위 5개국과 한국의 추이

(단위: 조 달러)



자료: Worldbank

- 비록 2021년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중국은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성장하였음.
- 최근 미국 대비 중국의 경제 규모 비중이 소폭 낮아지면서 이른바 China PEAK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뚜렷한 G2 국가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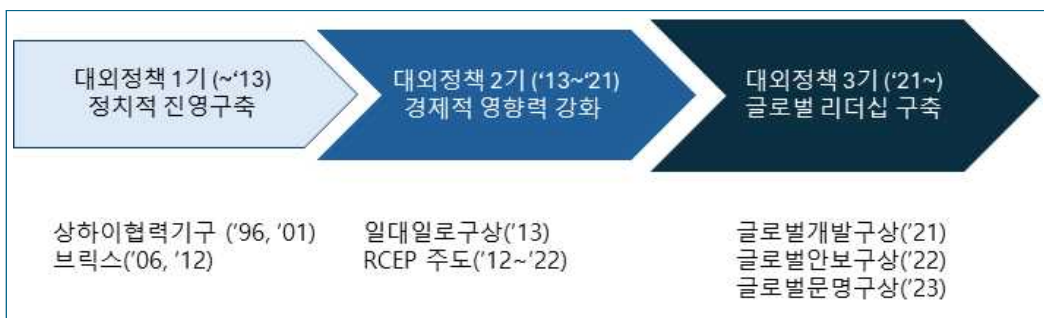
■ 중국의 대외정책의 진화

-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위상변화에 걸맞는 대외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체제의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중국의 대외정책은 시진핑 집권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나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BRICS)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연합체와 같은 진영공동체를 구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

- 시진핑 집권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중국제조 2025’가 전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을 통한 산업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음.
 - 중국 내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주변의 연선 국가와의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으로 확대되었음.
 - 한편, 2015년 공식 발효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7년 1월 탈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2022년 1월 공식 발효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음,
-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국제적인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중국 정부도 최근 3개의 글로벌 구상을 통하여 보다 근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임.
 - 중국 정부는 최근 기존의 진영논리나 경제적 팽창에서 전환하여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 중임.

[그림 2]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자료: 저자 작성

2. 중국의 대외정책 1기: 정치적 진영구축

1) 브릭스(B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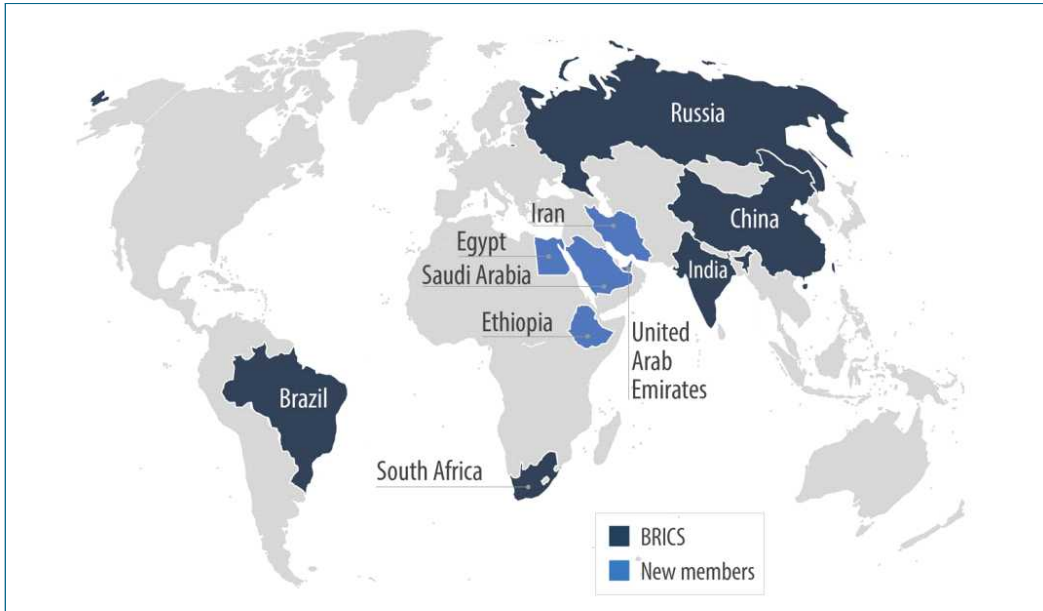
■ 브릭스의 탄생

- 브릭스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그리고 2011년 가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이 포함된 신흥경제국 협력체 개념이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비공식 그룹임.
- 미국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2001년 처음 언급한 용어이며, 2006년 9월 러시아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되면서 다자 연합체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외무부 장관 회담을 주최하였음.
- 2009년 6월에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BRICS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글로벌 금융위 및 경제위기에도 공동 대응할 것을 공표하였음.
- 브릭스 포털(BRICS Portal)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구매력 기준 글로벌 총생산의 27%, 인구는 약 29억 명으로 42%, 면적은 약 26% 수준임.

■ 안보공동체 성격으로 진화한 브릭스 플러스

- 브릭스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신규 회원국을 통한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릭스 플러스로 확대되었음.
- 브릭스는 한동안 신규 회원국이 없었으나 2022년 중국이 의장국이 되어 제14차 회의를 하면서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를 제안하였고, 2023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공식적으로 여섯 개 국가를 초청하면서 공식화하였음.
- 이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가 초청되었으나 새로운 대통령의 반대로 아르헨티나가 제외되면서 2024년 1월 5개의 국가가 추가되면서 총 1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그림 3] 브릭스 플러스



자료: European Parliament(2024)

- 브릭스 플러스는 글로벌 총생산의 36.5%로 성장한 반면, 회원국 간 특정 이슈별 상이한 입장으로 응집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European Parliament 2024).
 - 나일강 문제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대립하고, 중동에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립하는 등 회원국 간 상이한 입장으로 응집력이 낮은 편임.
- 브릭스 플러스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탈피하고자 국제 결제 통화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임.
 - 최근, 러시아산 원유 구매 대금을 중국이 위안화로 지급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 간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2) 상하이협력기구(SCO)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체

- 장쩌민 중국 주석이 1996년 결성한 상하이 파이브(Shanghai Five)를 모태로 2001년 우즈베키스탄의 가입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가 출범하였고 이후 4개 국가가 추가되면서 회원국은 10개로 확대되었음.
 - 상하이 파이브 출범 시 중국의 주도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였고,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되었으며, 201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리고 2023년에는 이란이 2024년에는 벨라루스가 가입하였음.
- 중국 베이징에 사무국이 있으며, 사실상 중국이 가장 영향력이 큰 주도 국가임.
 - 상하이협력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치·외교, 통상과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정상회담, 국무총리 및 외교장관 연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안보협력체에서 서방 사회에 대응하는 협력체로 진화

-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미국에 반발하여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 의사를 보이면서 서방 사회에 대응하는 협력체로 확대되고 있음.
 - 최초 기구설립 목적은 테러리즘이나 분리주의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미국 주도의 전략경쟁에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는 성격의 반서방블록 협력체로 확대되고 있음(연합뉴스 2024/7/4).

3. 중국의 대외정책 2기: 경제적 영향력 강화

1) 일대일로 구상

■ 일대일로 구상의 탄생 배경

- 국제사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막대한 정책자금을 시장에 투입하였고 이로 인한 여파가 중국 내 공급과잉을 초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추진되었음.
 - 시진핑 1기가 출범한 2013년 가을 시진핑은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구상을 밝혔고 이것을 묶어 일대일로 구상으로 공표하였음.
 - 건설장비와 철강 등 자재 등의 공급과잉 문제가 중국 내 중요한 경제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건설 수요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음.
- 일대일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과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우려하였음.
 - 일대일로가 연선 국가들을 중국의 경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을 재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내용과 한계

- 중국 정부는 2017년 제1차 일대일로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국가의 면모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하였음.
 - 베이징에서 2017년 5월 개최된 일대일로정상협력포럼에 전 세계에서 25명의 국가 정상이 참석하였고 약 1,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였음.
 - 베이징에서 2019년 제2차, 2023년에는 화상으로 제3차 일대일로정상협력포럼을 개최하면서 주요 성과를 홍보하였음.
 - 정책소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유통, 민심상통 등 오통(五通)을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내세웠음.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지나치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이유로 추진 중이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다시 등장한 마하티르 총리가 2019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던 동부해안철도사업을 실효성은 적은 반면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중단시켰음.
- 스리랑카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대가로 넘겨준 99년 동안의 항만토타 운영권에 대한 비난으로 반중시위가 발생하는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였음.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도로 경제적 영향력 강화

■ RCEP의 탄생 배경

- 미국이 2005년부터 주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공백이 생긴 환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 질서에 중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이끌었고, 동 협정은 2022년 2월 공식 발효되었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후속으로 추진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일본이 주도하여 2018년 발효되었으며 총 12개국¹⁾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 중국은 아태지역의 통상규범 측면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었던 RCEP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2022년 공식 발효시켰음.
- 현재 아세안 10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1)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영국

■ 전략경쟁 시대에 자유무역주의 전도사로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

-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자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면, 중국은 오히려 자유무역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연장선에서 RCEP을 주도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빈틈이 미국에게는 부담인 반면 중국에게는 기회요인이기 때문임.
-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중국은 CPTPP 가입도 추진할 전망이며, 아태지역에서 다자 간 자유무역주의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음.

3) 글로벌 정상회담 주치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표출

■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

-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중국이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오랫동안 공적부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등을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구축해 왔음.
 - 아프리카 국가의 요청에 따라 2001년 첫 장관급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아프리카협력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15년부터 정상회담도 추진 중임.
- 아프리카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및 광물자원 광산 개발 등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53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위포럼으로 중국-아프리카 인민 포럼, 중국-아프리카 청년 지도자 포럼, 중국-아프리카 보건 협력 장관급 포럼, 중국-아프리카 미디어 협력 포럼, 중국-아프리카 빈곤 감소 및 개발 회의, FOCAC-법률 포럼, 중국-아프리카 지방 정부 협력 포럼, 중국-아프리카 싱크탱크 포럼 등을 운영 중임(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홈페이지).

4. 중국의 대외정책 3기: 글로벌 리더십 구축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략경쟁은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대중국 견제가 국제사회의 연대로 전환되면서 신냉전의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과 무역기술위원회(Trade Technology Committee, TTC), 아시아 지역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미주 지역과는 미주번영파트너십(America Prospect Economic Partnership, APEP)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기 위한 AUKUS²⁾와 QUAD³⁾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음.

[그림 4] 중국의 3대 글로벌 구상과 공동운명체



자료: 김동수·문종철·장재기(2024)

- 중국의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전보다 글로벌 리더로서 대의명분을 고려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2) 미국(USA), 영국(UK), 호주(Australia)가 결성한 안보파트너십

3)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 기존의 진영화 구축이나 일대일로와 같은 팽창 전략은 상대국에 거부감을 주거나 미국의 견제 등의 반응을 일부 초래하였음.
-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3대 글로벌 구상은 이른바 “공동운명체” 구축을 위한 중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반미국 정서를 규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
- 결국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바꿀 새로운 글로벌 지도자”로서 등극하겠다는 것을 의미함(이상만 2024).
- 유엔을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음.

1) 글로벌개발구상(全球发展倡议,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 글로벌개발구상 배경

-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 주도의 팽창 전략으로 비치는 모습을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중국은 발전공동체 개념의 글로벌개발구상으로 전환
 - 실크로드의 옛 영화를 구현하려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중국으로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팽창정책으로 비치는 모습에 중국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등 몇몇 일대일로 연선 국가가 관련 프로젝트를 취소하였고,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으로 인한 채무의 부담감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음.

■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

- 전략경쟁이라는 대립 개념보다는 개발도상국에게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을 내세우며 중국이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보임.
 - 사실상 중국이 개발도상국에게 훌륭한 경제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개발도상국과 공동운명체로서 협력할 파트너라는 의미를 발신하고 있음.
- 글로벌개발구상 고위급 대화(2022.5.)와 글로벌개발센터 설립(2022.11.) 그리고 글로벌개발구상 로드맵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인류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2021년 유엔총회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으로 개발촉진, 개발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 개발경험 공유, 국제적 시너지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림 5] 중국의 글로벌개발구상 로드맵



자료: 中国国际发展知识中心(2023)

2) 글로벌안보구상(全球安全倡议, 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 글로벌안보구상 배경

- 전략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데이터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데이터 안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2020년 데이터안보구상을 발표하였음.
 - 미국은 중국의 데이터 유출로 인한 안보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청정네트워크(The Clean Network) 구상을 발표하였음.
 -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글로벌데이터안보구상(全球数据安全倡议,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을 공표하면서 다자주의 및 데이터 안보를 포함한 디지털 안보 보장 등을 주창하였음.
- 데이터 안보나 디지털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로 전략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2022년 글로벌안보구상으로 확대하였음.

■ 글로벌안보구상의 의미

- 글로벌안보구상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안보를 추구하자는 취지임.
 - 국제사회가 잦은 지역분쟁, 팬데믹,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등이 확산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짐에 따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 보아오 아시아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안보공동체 구축을 위한 글로벌안보구상을 공표하였음.
- 글로벌안보구상은 전략경쟁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이 아닌 유엔의 평화적 안보 협력과 같은 대의명분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확산금지위원회,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학무기금지협약의 틀 아래 협력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추진하는 등을 강조함으로써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음.
- 글로벌안보구상은 중국의 글로벌 경영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아세안에서는 아세안의 안보 협력 질서에 따르고, 중동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협력 구상에 따르겠다는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분쟁에 중국이 정당한 방향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글로벌 경영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글로벌문명구상(全球文明倡议,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

■ 글로벌문명구상 배경

- 국제사회가 분절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문명 간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문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중국이 글로벌문명구상을 제안하였음.
 -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대화에서 글로벌문명구상을 발표하였음.
- 유엔과 일부 국가에서 글로벌문명구상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중국은 홍보하고 있음.

-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제안한 “국제 문명 간 대화의 날 제정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튀니지와 이집트 등 12개 국가 이상에서 양자 문서에 글로벌개발구상을 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人民日報 2024/6/10).

■ 글로벌문명구상과 중국 문명의 역할

- 글로벌 문명에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이 있음을 글로벌문명구상 발표에 담고 있음.
 - 중국은 중국 문명의 토양에 뿌리를 둔 글로벌문명구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문화의 위치를 고수하여 인류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계획임.
 - 글로벌문명구상은 새로운 시대에 중화민족이 더 역동적인 문명 업적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위대한 실천이며 중국 문명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秦龙·李维光, 2024).
- 글로벌문명구상의 근본적인 의미는 중화 문명으로의 전환이 아닌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인정과 공동발전 및 책임을 공유하는 하자는 데에 있음.

5. 중국 대외정책의 도전과제

■ 중국 정치체제의 한계

- 중국이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중국식 질서에 한계가 있으며, 서방 선진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의 공산당 정치체계가 지니는 사회주의라는 특성은 서방 사회를 이끄는 질서로 통용되기에는 자율성·투명성·공정성·유연성·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때로는 지나친 규제, 때로는 규제의 비실효성·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국제사회로부터 공감을 잃기도 하며, 규제 이면에 만연하는 불공정이나 비합리적 행위에 선진사회가 거부감을 가짐.

■ 서방 선진사회의 대중국 견제

-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와 일본 등 서방 선진사회가 반중국 정서를 공유하면서 견제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G7이나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OECD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FIVE EYE⁴⁾, QUAD 등은 사실상 대중국 협력체임.
-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임.
 - 미국은 유럽연합과의 TTC,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IPEF, 미주지역 국가와는 APEP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임.
 - 반도체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일본, 한국, 대만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고, 핵심 광물자원의 대중국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핵심광물자원안보

4) 미국(USA), 영국(UK), 캐나다(Canada),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가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을 구축하고 있으며, 바이오안보법(Bio Secure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강화되고 촘촘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음.

참고자료

- 김동수·문종철·장재기(2024).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forthcoming).
- 김동수·김재덕·황경인(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물자관리원.
- 이상만(2024). 「중국의 글로벌 대전략: 글로벌 3축 이니셔티브 적실성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 전문가 오피니언.
- European Parliament(2024). Expansion of BRICS: A quest for greater global influence?. BRIEF.
- 中国国际发展知识中心(2023). 「全球发展倡议落实进展报告 2023」.
- BRICS Portal. <https://infobrics.org>(검색일: 2024.10.6.)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24.10.6.)
- 秦龙·李维光(2024). “深刻把握全球文明倡议的文明境界”. 求是网(2024.5.29.)
http://www.qstheory.cn/dukan/hqwg/2024-05/29/c_1130153477.htm(검색일: 2024.9.5.)
- “반서방 블록 역할하는 상하이협력기구…중러 주도”. 연합뉴스. 2024.7.4.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4014600009>(검색일: 2024.10.18.)
- “全球文明倡议顺应时代潮流, 契合时代需求”. 人民日报 2024.6.10.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6/content_6956500.htm(검색일: 2024.10.5.)
-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홈페이지. <http://www.focac.org/eng>. (검색일: 2024.10.17.)